

# 권역별 '거점형 특화공원' 만들어 천년의 숲 등 '정원도시 서울' 조성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설치  
서북권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동북권, 도봉 서울창포공원 정비



백련근린공원.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에 '거점형 특화공원'을 조성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거점형 공원을 권역별로 만들어 각 지역에 균형 있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남권에는 오는 2027년까지 양천구 신월IC~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구간엔 '국회대로 상부공원'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8차로를 6차로로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목동운동장~국회의사당 3.6km 구간에 1만 6000㎡ 크기의 가로숲을 마련한다.

이어 2027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해 지하차도 상부에 쉬어가는 정원와 천년의 숲 등을 조성한다. 공원은 신월IC~목동운동장 4km 구간에 8만 70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61억57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695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에는 2026년까지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을 설치한다. 공원은 서대문구 흥은동과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약 78만㎡ 크기로 마련된다.

시는 ▲특화거점으로 논골마을 놀자 숲, 꿈마을 숲정미, 백련활력마당을 ▲특화시설로 은평정, 자연놀이학습센터, 산림치유센터 ▲연결지점으로 녹번역과 통일로 입구광장, 홍제천~안산 연결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시는 5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특화거점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북권 주민들을 위해 시는 도봉구 소재 서울창포원을 정비하기로 했다. 창포와 붓꽃 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사계절 꽃정원을 만들고, 체험형 공원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년 예산은 13억원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이다. 연내 플라워가든을, 내년까지 매력

가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남권에서는 10만㎡ 이상 규모의 대형 공원 2곳을 개선한다. 사업 위치는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약 11만㎡)다. 시는 암사역사공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달 암사동 219-1번지를 포함 2필지 2772㎡에 대한 보상 협의 및 계약,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했다.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말죽근린공원도 손질한다. 사업 부지는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약 13만㎡)이다. 시는 총사업비 88억 13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테마정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유럽서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김동연지사, 오스트리아 등 방문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류를 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 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서울시, 법인카드 포인트 취약층에 기부

서울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취약계층 기부금으로 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인명의 카드는 결제 후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하는 것을 금지했었고 법인명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도 많지 않았다"며 "이에 법인명의 카드 결제 후 법인 대표 전화 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포인트 적립률(1~5%)이 비교적 높고 법인명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갖춘 가맹점과 4대 서점(교보·영풍·알라딘·예스24)에서 포인트 적립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적립된 법인명의 포인트는 반기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된다. 시는 지속적인 포인트 적립을 위해 실물 신용카드에 포인트 적립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서울Biz페이 앱을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 고교 1곳당 의·약대 수시 71→82건 '급증'

'지역인재전형' 지방권서 더 늘어  
호남권 학교당 평균 35.9건 '최대'  
충청권 35.4건, 대구경북 32.8건

2025학년도 대학 의약학계열 수시 모집에서 고등학교 한 곳 당 평균 지원 건수가 82.3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지원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내신 2~3등급 학생들도 의약학계열 지원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종로학원이 대입수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가 지난해 70.8건에서 올해 82.3건으로 평균 10건 넘게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은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고교당 평균 13.7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셈이다.

이중 의대 지원자 수는 2025학년도 전국 학교당 평균 40.3건으로, 31.9건이

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전국 6개 권역 중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지방권 고교 지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학계열 기준으로 지방권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29.2건으로, 지난해(16.5건)보다 두배가량 높아졌다.

지방권 권역별로는 호남권 241개 고교에서 의약학계열에 학교 당 평균 35.9건을 지원해 전국에서 고교 당 평균 지원 건수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호남권 고교의 의약학계열 학교당 평균 건수는 22.0건이었다.

충청권 202개 고교에서는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학교 당 평균 35.4건을 지원했다. 지난해(13.0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이어 ▲대구경북권 200개 고교(학교당 평균 32.8건, 지난해 20.2건) ▲강원권 87개 고교(학교당 평균 23.3건, 지난해 13.2건) ▲부울경 299개 고교(학교당 평균 20.5건, 지난해 13.6건) ▲제주권 24개 고교(학교당 평균 8.0건, 지난해 6.3건) 순을 나타냈다.

지방권 대학 수시에서 의약학계열 지역인재전형의 학교 당 평균 지원 건수는 지역별로 35.9건에서 8.0건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의대만 두고 보더라도, 지원건수가 고교당 평균 최대 26.4건에서 최소 3.1건으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최대 9.8건에서 최소 2.2건과 비교해 보면 고교당 지원자 건수가 대단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의약학계열 지원자의 내신 평균이 1등급대였다면, 2, 3등급대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로 해석된다. 학교 내신은 현재 상대평가를 통해 9등급으로 나뉘며, 상위 4%가 1등급을 받고, 2등급 비율은 상위 5~11%다.

임 이사는 "일반적으로 기준에는 1등급대 학생들이 의대 수시에 지원하는 패턴이었다면, 올해는 일부 지방에선 내신 2등급대 이하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 내년부터 '한강버스' 운항인력 키운다

서울시, 해양경찰청 등과 업무협약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는 '한강버스' 운항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미래한강본부에서 해양경찰청,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 및 차세대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구·훈련 지원 ▲차세대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수상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조안·자문 ▲수상시설·레저·교통 등 한강 안전 운항 환경 조성 ▲한강과 서해벚길 연계 등 수상 교통 체계 발전 ▲한강버스 및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3 | 해질 / 17:38

10월 28일(월)  
음력 : 9월 26일

수도권 날씨  
11~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9/20, 동두천 9/20, 가평 9/19, 파주 8/20, 서울 11/20, 양평 11/20, 인천 11/20, 수원 11/20, 용인 11/20, 평택 11/20, 백령도 12/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가자북부 베이트 라히야 공습, 최소 22명 사망  
▲쿠르스크 도착 북한군, 우크라이나 점령지 탈환에 투입될 듯...NYT / 사진 뉴스스

▲'금속조각 위험'...코카콜라, 유럽서 2800만개 음료 리콜  
▲'매년 수천명 조용히 사망'...CNN이 분석한 '韓 고독사'



▲젤렌스키 "북한군 투입 가능성"에 유엔 사무총장 키우방문 취소시켜 / 사진 뉴스스  
▲사우디, 세계 최대 건물 '무카브' 착공...큐브 모양